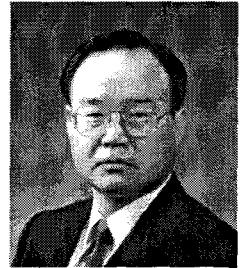


# 「新경제」를 위한 에너지·資源政策



朴在潤  
通商産業部長官

## 1. 에너지·資源政策의 基本方向

### “新경제”의 指向

거 우리 경제는 政府의 指示와 統制를 발전메카니즘의 根幹으로 하여 성장해 왔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문으로 資源이 집중되도록 指示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으로 資源이 배분되지 않도록 統制함으로써 제한된 資源을 經濟發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經濟의 規模가 커지고 構造가 複雜해지며 사람들의 意識도 民主化됨에 따라 이제 그와 같은 발전메카니즘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70년대 후반에는 民間主導의 경제운영이, 80년대 초반에는 經濟自律化가 추구되었으나, 당시에는 政治的 民主化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經濟만 民間主導로 운영되거나 自律化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후 80년대 말부터 政治的 民主化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經濟發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民主主義가 가져다 준 개인의 자유가 勞使紛糾 등 개인적 욕구분출과

集團利己主義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新경제”에서는 政府의 指示와 統制 대신에 國民의 參與와 創意가 경제발전 메카니즘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 각자의 參與와 創意로 연결하여 권위주의체제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自發적으로 參與하고 能動的으로 創意력을 발휘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지는 것이다.

經濟發展을 위한 國民의 參與와 創意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政府의 規制를 완화하여야 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經濟正義를 확립하여야 한다.

“新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規制緩和와 經濟正義 확립을 위해 財政·金融·經濟行政規制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① 財政改革은 재정의 衡平機能과 景氣調節 機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稅率을 인하하고, 課稅標準을 현실화 하며, 租稅減免을 축소하고, 租稅捕捉率을 높이며, 재정지출중 人件費, 所得補償的 支出 등 고정적 지출의 비중을 낮추어 가고 있다.

그 결과 92년에 비해 95년에는 所得稅 최고 세율은 50%에서 45%로, 綜合土地稅의 課稅現實化率은 17.3%에서 31.6%로, 재정지출에서 고정적 지출의 비중은 65.7%에서 57.8%로 개선되었고, 公共資金管理基金이 신설되었으며, 그밖에도 각종 特別會計 및 基金의 정비, 公企業의 民營化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② 金融改革은 金融市場과 金融產業에서의 모든 결정이 市場機能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自律化, 국내외 금융기관간에 競爭을 촉진시키는 開放化, 그리고 자율화와 개방화에 따른 금융질서의 교란을 막기 위한 金融節度의 確立이라는 세가지 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金利自由化, 은행장 인사의 자율화, 정책자금의 축소 등 중요한 金融自律化 조치가 이루어졌고,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金融實名制를 실시하고 金融監督機能을 강화하는 등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經濟行政規制改革은 각종 規制를 撤廢·緩和하고 규제방식을 전환하여 정부부문의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토지이용에서부터 공장설립, 생산, 유통, 수출입 및 가격결정 단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제행정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각종 節次를 簡素化하였다. (금년 3월말까지 총 1,970건의 규제완화 대상과제중 1,759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

政府는 經濟行政規制緩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 “行政規制 및 民願事務基本法”을 제정하였다.

앞으로는 각종 규제의 철폐나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規制緩和 뿐만 아니라 直接規制를 間接規制(예 가격관리)로, 事前的 規制를 事

後的 規制(예 환경)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政府는 參與와 創意를 국민의 의식에 직접 호소하는 意識改革運動을 병행하고 있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共同體意識을 함양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의 參與와 創意를 직접 유발하지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의식개혁은 공직자가 率先垂範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經濟意識改革은 언론·소비자단체 등의 市民運動을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94년말 대통령의 “시드니구상”에서는 새로운 國家發展戰略으로 世界化가 제시되었다. 世界化는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국가발전의 모든 부문에서 世界一流化를 도모하지는 것이다.

이는 세계가 국경이 없는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동체로 이행해 가는 “地球村化”의 과정에서 우리가 生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世界一流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新경제”는 대체로 金泳三大統領 재임기간 중에 추진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으로 궁극적 목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고,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다지자는 것이다.

반면에 “世界化”는 보다 長期的인 視界를 가지고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세계일류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

世界化를 위해 政府는 教育, 法秩序, 政治와 言論, 行政과 地方, 環境, 文化와 意識 등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① 教育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次世代 國民을 양성하기 위해 個人

의 人性과 創意가 중시되고 競爭原理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② 法秩序를 世界化하여야 한다. 기초질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행위준칙으로서 法の 支配가 정착되어야 한다.

③ 政治와 言論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치의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언론도 社會의 公器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④ 行政과 地方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地方自治制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⑤ 環境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우리의 次世代들이 자연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模範的인 環境共同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⑥ 文化와 意識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에 나아가 세계인들과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姿勢와 意識을 갖추어야 한다.

### 에너지·資源政策의 基本方向

난 90년대초까지 정부의 에너지·資源政策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차질없이 供給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規制와 介入, 그리고 量的 擴大에 치중한 에너지·資源政策은 높은 석유의존도, 낮은 에너지이용 효율, 에너지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와 시장기능의 위축 등 構造的인 脆弱性을 초래하게 되었다.

“新경제”에서는 앞으로 에너지·資源産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安全”과 “效率”을 極大化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安全을 極大化하는 것이 곧 效率를 極大化하는 길이라는 인식 아래, 각종 事故와 災難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生活의 安全”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競爭促進과 需給安定을 바탕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저렴하면서도 질이 높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供給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成長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新경제”를 위한 에너지·資源政策의 基本方向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 에너지사용과 관련한 각종 安全事故를 豫防하고, 安全管理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삼을 것이다.

② 에너지 需給管理와 利用效率 向上에 중점을 둘 것이다.

③ 國內外 에너지·資源開發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의 安定供給體系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④ 에너지·資源産業이 環境과 調和를 이루도록 유도할 것이다.

⑤ 에너지·資源産業에서의 競爭을 促進할 것이다.

### 2. 에너지·資源産業의 與件變化와 展望

#### 세계 에너지 情勢와 展望

990년 걸프전쟁 이후 세계 에너지·資源의 전반적인 정세는 대체로 安定基調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이러한 기조의 이면에는 커다란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90년 이후 세계 에너지소비는 평균적으로 0.4%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비OPEC 산유국들의 석유공급량 증가에 힘입어 에너지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안요인이 상당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需要 側面에서는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특히 동남아를 비롯한 중국, 동구국가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세계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供給側面에서는 국제 석유시장에서 아직도

OPEC과 같은 자원보유국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자원 부존지역의 편재성, 부존량의 유한성 및 생산의 비탄력성 등 본질적인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① 2020년경 지구의 인구는 현재보다 2배가 늘어난 80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세계 경제가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수급 패턴에 근본적인 대책이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향후 수십년간 에너지 소비증가의 85%이상을 中國 등 開發途上國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開發途上國의 經濟成長이 21세기의 세계 에너지소비량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供給擴充을 위한 投資財源 부족과 인프라 미비, 특히, 석유부문에서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지역적인 에너지 수급과동이 우려된다.

② 世界 石油埋藏量의 약 66%는 中東에 집중되어 있으며 OPEC의 12개국을 기준으로하면 그 집중도는 76%에 달한다.

또한, 전세계적인 매장량은 1994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石油는 43년분, 天然가스는 66년분, 石炭은 235년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가능년수는 더욱 단축될 것이다.

최근에는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지난 해 겨울 세계적인 이상한파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96년 4월에는 걸프전쟁(91년) 이후 최고수준인 배럴당 25.27\$(WTI油)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市場分析 專門家들은 지난 5월 20일 UN 이라크간의 석유수출 재개협상이 타결되고 현재의 국제석유시장이 다소 공급과잉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OPEC이 추가 감산에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는 배럴당 1\$정도 하락하여 96평균 國際油價는 Dubai유 기준 15.70\$/B 선으로 전망하고 있다.

③ 액화천연가스(LNG)는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수요잠재력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가스전 개발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적인 공급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국들은 환경프리미엄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이 반영되는 수준으로 LNG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위적인 가격의 상승은 청정석탄기술 등 여타 청정연료에 대한 우위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다면 급격한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한편, 地球의 溫暖化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UN 環境開發會議에서 채택되어 94년 3월 발효된 氣候變化協約은 세계 에너지수급체계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先進國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에너지업계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開發途上國으로 분류되고 있어 규제를 받고있지 않지만 OECD 가입시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資源産業에서 競爭力 提高를 위한 産業構造 改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先進國에서는 電力産業과 가스産業 流通部門의 改編이 진행되고 있으며, 開發途上國에서는 生産·供給 인프라 등에 대한 投資財源 確保를 위한 對外開放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資源産業의 變化의 흐름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加速化할 것으로 예상된다.

## 國內 與件의 變化 및 展望

계 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지

난해 우리 경제는 성장·수출·투자 등 모든 면에서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經濟成長率은 9.0%를 달성하고 輸出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24.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設備投資 또한 15.9%에 이른 신장세를 보였다.

금년 1/4분기에는 經濟成長率이 7.9%를 기록하고, 輸出도 21.3% 증가하여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연간성장률이 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에너지·資源產業은 93년부터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한자리수를 유지함으로써 安定勢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生活水準의 向上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安全意識 결여로 인한 安全事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이상 너그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시설은 안전에 취약한 부문으로서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安全管理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에너지소비가 계속 經濟成長率을 웃돌고 있으며, 1人當 에너지消費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에 있어서 향후 증가할 잠재요인이 크므로, 15년 후인 2010년의 총 에너지수요는 현재의 약 1.9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產業構造의 高度化, 통신·도로·항만 등 主要 社會間接施設의 擴充, 國土開發 등으로 인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개발에 대한 社會經濟的 需要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供給能力의 制約으로 인해 적극적인 國內外 資源開發과 에너지消費節約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③ 國內 賦存資源이 빈약한 상황에서 95년 말 현재 에너지 輸入依存度가 97%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너지 需給安定을 위해 國內 資源의 效率的인 開發과 석유 등 海外資

源開發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④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에너지 消費行態가 便宜性, 機能性, 淸淨性 등을 중시하는 추세로 변화함에 따라 고품질 에너지로의 수요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快適한 環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環境關聯 負擔이 증대될 것이다.

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地方自治制度는 지역 에너지개발정책의 자율적인 추진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지방분권화 및 지역특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권화에 따른 社會經濟的 非效率性和 지역간 不均衡이 심화되고, “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으로 지칭되는 地域利己主義가 확산됨으로써, 발전소·정유시설·석유비축시설·가스배관망 등 에너지供給施設의 立地確保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3. 96년 에너지·資源政策의 方向

년도 에너지·資源政策은 과감한 自由化와 規制緩和를 통하여 자생적인 경쟁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수급의 안정과 이용효율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國內外的 資源을 효율적으로 開發해 나가면서, 安全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힘쓸 것이다.

또한, 에너지·資源產業이 環境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地方政府와 상호 협력하여 에너지·資源政策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安全을 최우선으로 하는 政策

너지사용과 관련한 각종 安全事故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安全度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生活

의 안전이며,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政府의 基本的인 責務이기 때문이다.

①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점검 위주의 안전관리로부터 모든 기업활동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스安全管理綜合體系”로 전환하였고, 95년 7월 都市가스事業法 등 가스관련 3법을 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設計·施工監理制度和 타공사로 인한 配管損傷防止制度, 배관안전점검원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통상산업부,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였고, 96년 3월 가스시설공사 및 검사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가스안전공사에 “가스安全技術研究센터”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의 내실화와 기술향상을 도모하였다.

앞으로, 도시가스 配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97년까지 1단계로 가스 配管圖의 電算化를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배관의 부실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시공자에 대하여는 재시공지시 및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가스사고 취약시설에 대해 동절기, 해빙기, 우기에 特別點檢을 강화하고,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教育 및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弘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말 징수시한인 가스安全管理基金을 폐지하고 에너지 및 資源事業 特別會計에 통합하여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안전관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 의무화와 가스保險制度의 개선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② 電氣에 대한 安全管理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수·화력발전시설을 專門機關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발전, 송변전시설 등 전기설비도 專門檢查機關이 검사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유흥업소·시장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며, 原子力發電所에 대해서

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공신력있 국제전문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 등에 의뢰해서 보다 심도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③ 鑛山에서의 安全事故를 줄이기 위해 업체별로 재해발생 정도에 따른 정부의 차등 지원폭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였고, 폐광지역의 地盤沈下 防止事業 및 광산개발에 따른 鑛害防止事業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 需給安定을 위한 政策

민생활의 便益增進과 經濟成長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發展戰略을 제시하고, 에너지의 安定供給體制를 공고히 하며, 에너지 利用 效率向上 및 需要管理에도 중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① 2020년까지 에너지·자원부문의 “21世紀 經濟 長期構想”을 확정하고 향후 예상되는 핵심과제에 대한 실천전략과 정책수단을 개발하며, 에너지수급, 공급시설 확충,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10년 단위의 “國家에너지 基本計劃”을 금년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② 80년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전력, 향만 등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물류비용이 과다해짐으로써 산업의 競爭力確保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電力의 경우 해마다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하절기의 전력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여름철 電力需給安定對策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설비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력의 안정공급을 위해 95년 12월 확정된 “長期電力需給計劃”에 따라 발전설비 등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立地確保에 노력할 것이다.

③ 石油 安定供給을 위해 정유시설·장거리 송유관 등 供給施設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비상시에 대비하여 石油備蓄施設도 계속 증설하는 한편,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하여 95년 8월 사우디 등 中東產油國에 대한 순방외교를 전개하였다.

앞으로, 產油國과의 資源外交活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國際에너지機構(IEA) 가입을 추진하여 비상시에 선진소비국과 석유를 융통하는 등 에너지소비국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정유시설, 장거리송유관 및 석유비축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④ 천연가스의 安定供給을 위해 2000년 이전까지의 추가 소요물량을 인니, 카타르로부터 확보하였고, 全國供給配管網을 계획대로 확충하여 대전, 대구, 광주 등에 공급하였으며, 평택 및 인천인수기지도 계속 건설중에 있다.

금년에는 평택인수기지 확장 및 인천인수기지를 완공하고, 제3인수기지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부산, 창원 등에도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월 조정된 “長期天然가스需給計劃”에 따라 추가 소요물량의 導入先을 안정적·경제적으로 확보하고, 천연가스 수송수요의 증가에 따른 후속 國籍船을 적기에 확보하며, 弓受基地 및 全國配管網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⑤ 立地·投資財源 등의 제약으로 에너지공급시설을 무한정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環境規制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需要管理施策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에너지價格의 현실화를 통한 수요관리 기능을 제고하도록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을 需要管理型으로 개선하였고, 95년 1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사들의 수요관리를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앞으로, 에너지 낭비요인을 줄이고 利用效率向上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절약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육성 등 에너지 節約施策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촉진, 고효율기기보급, 집단 에너지 보급확대 등 지원시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環境과 調和를 이루는 政策

너지(Energy)는 經濟(Economy), 環境(Environment)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 3E가 상호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持續可能的 發展(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지하면서, 삶의 質 향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環境과 調和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① 우리나라는 93년 12월 氣候變化協約에 47번째로 가입하였고, 금년 OECD 가입시 선진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압력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의 후속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국에 포함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95년부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國家報告書”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주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國家報告書”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중장기 에너지需給戰略을 수립하고, 부문별 실천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② 환경친화적인 新·再生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普及를 촉진하기 위해 10년 이내에 총 에너지의 3%를 태양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하여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新·再生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부문별 에너지기

술개발계획을 통합하여 “國家에너지技術開發基本計劃”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선진국과의 技術交流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③ 석탄·석유 등도 環境保全施設을 갖추고 사용하도록 하면서 淸淨에너지技術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천연가스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소형차량의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장기적으로 에너지사용에 따른 環境關聯費用負擔을 에너지가격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市場原理에 의한 環境保全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 에너지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방법으로 費用化하여 에너지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外部不經濟 효과를 줄여 나갈 것이다.

### 國內外 資源의 效率的인 開發을 위한 政策

에너지·자원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발생가능한 에너지危機에 대비하기 위해 國內資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海外資源開發을 위한 우리 기업의 海外進出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① 급속히 수요가 줄고 있는 국내 石炭産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減産하면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잉여무연탄의 정부비축과 對替産業 誘致 등을 추진하였다.

95년 12월에 “廢礦地域開發支援 特別法”을 제정하였고, 금년 4월에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高原觀光地 開發과 대체산업 유치 등을 위해 廢礦地域振興地區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② “自然的인 資源貧國”에서 “人爲的인 資源富國”이 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원할 수 있도록 95년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였고, 未修交國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

선하였다.

금년에도 “海外資源開發法”을 개정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원자금의 확대, 지원절차의 간소화 및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③ 對外競爭力이 있는 電力産業, 精油産業, 地域援房事業 등 에너지산업도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 필리핀 등 에너지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地方政府와 協力を 이루는 政策

方自治制 실시 이후 地域利己主義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시설의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政府 차원의 에너지·자원 정책만으로는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資源政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地方政府의 參與와 協力を 통하여 에너지資源政策課題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地方政府의 地域에너지事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① 그동안 地方自治團體들에게는 에너지·資源政策의 樹立 및 推進 過程에 參與機會가 적었기 때문에 에너지문제에 대한 關心과 專門性이 부족하고 에너지정책의 수용여건도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地方化時代에 맞는 에너지·자원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地域에너지計劃을 수립·시행하도록 95년 1월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을 개정하였고, 95년까지 3개 시·도의 地域에너지計劃을 시범적으로 수립하였다.

금년말까지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도 지역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중이며, 앞으로 지역에너지정책과제 연구, 정보망구축, 교육



· 홍보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地域에너지 基礎를 구축하고 地域에너지 行政의 專門性을 제고할 것이다.

② 地方自治團體에서 地域에너지계획에 따라 地域特性에 맞는 에너지事業을 추진할 수 있도록 制度的·財政的 支援을 확대하고, 고효율기기 및 대체에너지 시범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에 대한 각 지역의 關心과 認識水準을 높여 나갈 것이다.

③ 地方自治制 실시이후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地域住民의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업자들이 供給施設의 立地確保와 建設에 애로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산업의 地域親和力을 높이고 에너지사업에 대한 認·許可權을 갖고 있는 地方政府가 에너지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條件을 造成하기 위하여, 地域에너지사업에 대한 財政支援을 擴大하고 해당 地方自治團體와 의 協力을 強化해 나갈 것이다.

### 競争促進을 지향하는 政策

너지산업이 개방화 추세에 따라 민간의 創意力이 최대한 발휘되고 競争力을 갖추어 나가도록 에너지·자원정책도 공익보호를 위한 最小限의 政府規制만을 유지하고 민간의 參與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점차 축소해 나가면서, 開放과 參與의 확대를 통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산업의 對外 競争力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① 그동안 석유수급의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위해 실시한 석유제품의 最高價格 告示와 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 등에 대한 許可制 등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石油産業의 自由化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하여 석유제품의 가격, 수출입, 석유 생산 및 유통시장의 신규진입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95년 12월 石油事業法을 개정하였고,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자유화하기 위한 전단

계로 94년 2월 油價連動制를 실시하였다.

97년부터 국내 石油製品의 販賣價格을 전면 자유화하고, 石油 輸出入도 자유화하는 동시에, 99년부터 석유산업에 대한 新規進入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한편, 外國人에도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流通構造改善과 석유비축의무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석유사업법시행령 등 관련법령도 정비해 나갈 것이다.

② 급속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天然가스産業에 대해서는 인수기지 및 전국공급배관망을 계획대로 건설해 나가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競争體制 導入方案 등을 검토할 것이다.

③ 電力産業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發電部門에 民間資本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95년 12월 확정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2010년까지 民資發電事業을 총 15기 635만KW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原子力 事業體制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대책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장기적인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民資發電180만KW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事業者 選定 및 認·許可를 완료할 계획이며, 전기공사업 등에 대한 電力事業의 構造改編 綜合計劃을 수립하여 전력분야의 규제완화를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다.

### 4.에너지·資源 業界의 役割

TO체제가 본격화되고 世界經濟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이제 우리 기업도 남보다 한발 앞서 적응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치열한 經濟戰爭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地方自治制의 실시로 地域經濟의 비중이 커지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정부간에 치열한 경쟁과 협력이 추

진되는 상황에서 企業들도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걸맞는 經營戰略을 수립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世界化·地方化(GLOCALIZATION)時代에서 競爭을 선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資源産業人 여러분이 수행할 役割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① 지난 몇년간 발생한 대형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더이상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에너지업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가스과 전기 등 고급에너지는 사용이 便利한 반면에 危險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더이상 국민들이 에너지관련 시설을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에너지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安全”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자세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②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 이상이므로, 에너지節約 및 利用效率向上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需要管理는 에너지공급시설의 입지확보와 투자비의 조달이 어려운 현실에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사의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에너지 供給社는 需要管理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원산업은 國民生活의 기초이자 産業活動의 원동력으로서 공익성이 강하므로 불안정한 勞使關係는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産業平和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經營者들이 솔선하여 認識을 轉換하고 人間經營을 실천함으로써 協力的인 勞使關係의 정착을 앞당기는데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한다.

③ 에너지·자원은 環境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관심이 높아져, 이제는 에너지·자원 산업인들도 環境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의적인 環境規制의 強化는 우리의 에너지산업에 하나의 負擔이며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機會이므로 남보다 먼저 環境問題를 고려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④ 世界化時代의 競爭에서 우리 에너지·자원산업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에너지·자원산업도 政府의 規制와 保護에서 벗어나 經營革新과 지속적인 技術開發 및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競爭力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자원 개발과 세계에너지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에너지·자원산업인 여러분도 세계화를 위해 意識轉換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와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⑤ 지난해 본격적인 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環境과 安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 에너지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에너지·자원산업에 대한 요구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자원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자원산업을 地域親和的인 産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經營戰略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에너지·資源業界가 누구 보다는 많은 寄與를 하였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에너지·資源業界가 世界化時代를 선도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世界一流國家”를 만들기 위한 선진대열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